

국방시설본부, 하반기 CM용역 440억 집행한다

☎ 하종숙기자 | Ⓞ 승인 2019.06.25 15:30

| 2019년 하반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업체 간담회서 설명회

**국방시설본부, 군 시설물의 고품질 사업관리 일환 매년 2차례 개최
하반기 CM발주 앞두고 공정·투명한 평가 실시 등 발주 물량 설명도**



국방시설본부는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업체 간담회'를 개최, 업계와 군 시설물 고품질화를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사진은 간담회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방시설본부(본부장 김재봉 준장)가 하반기 건설사업관리(CM) 용역 16건, 440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시설본부는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업체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국방시설본부는 매년 상, 하반기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군 시설물의

고품질 사업관리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번 6회째 열린 간담회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등 25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참여했다. 권오진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장(해병 대령)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강조했고, 업계는 군 시설공사의 품질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국방시설본부가 하반기 발주를 예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증 외상센터 배후병원 리모델링, 해군부대 정비저장시설 등 총 16건이며, 용역비는 440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특히 돌고래사업은 기술자평가(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종숙 기자

국방일보

 프린트하기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간담회

기사입력 2019. 06. 25 17:42

국방시설본부는 25일 서울 용산의 본부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방시설본부가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고품질 사업관리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는 이번에 6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등 25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가 참가했다. 본부 권오진(해병대령) 평가교육과장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강조했고, 업체는 군 시설공사의 품질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국방시설본부가 하반기 발주를 예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증외상센터 배후병원 리모델링, 해군부대 정비저장시설 등 총 16건이며, 용역비는 440억 원 규모로 배정됐다. 특히 돌고래사업은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술자평가(SOQ)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 <lgiant61@dema.mil.kr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린트하기

취소하기